

나주시, '2026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성료

아동권리 체험행사 1500여 명 참여



참가자들이 출발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한 '2026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행사가 지난 23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아동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 및 국내 이주 배경 아동의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소양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비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라톤 코스는 빛가람호수공원

내 잔디마당길에서 출발해 호수가 둘러싸고 있는 4km 미니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체력에 맞춰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요' 그룹과 '느긋하게 달려요' 그룹으로 나누어 10분 간격으로 순차 출발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마라톤과 함께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체험 부스는 아동 권리, 환경, 놀이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아동과 가족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와 뜻깊은 교육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점검

화순군,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성료

담양군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투표 종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의시험은 관내 12개 읍·면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장비담당 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선거전용 통신망 점검과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접속, 모의 투표용지 출력 등 실제 사전투표 상황을 가정한 점검을 통해 투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이 높은 자격증 취득률과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력 단절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거나 전문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리수납전문가 1급 ▲노인건강운동지도사 1급 등 2개 과정이 운영됐으며, 총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약 90%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 제10기 영광군생활공감정책참여단 봉사활동 전개

글로리아모니와 함께하는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다



제10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최근 제10기 영광군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글로리아모니 공연단이 함께 명랑운동회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희망의 장을 마련하

는 뜻깊은 자리였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대표 이종호)과 글로리아모니(대표 김지혜)는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형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정책을 알리는 동시에 문화공연을 통해 정책과 일상이 자연

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음악을 통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자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관계자는 "정책제안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음악을 통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음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지역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영광군이 추진하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취지와 맞닿아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실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기 자

장성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26일 지역 내 어린이집 9곳 차량 경찰·공단과 합동점검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 실내수영장 주차장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9곳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1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성지역 내 어린이집은 총 10곳으로, 상무어린이집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군은 이날 담당 공직자와 장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통학버스 전용표시 등의 작동 유무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차량 내부에선 어린이 전용 안전띠의 작동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수리·점검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통보하고 6월 중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오는 10월에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 사진

/장성군 제공

안전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각 어린이집에 즉시 통보하고 개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내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중심으로 세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하반기 추가 점검도 실시해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깡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